

지역 소식통

부안군,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집중 홍보 시행

부안군은 이달부터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홍보하기 위한 현장 지도에 나선다고 밝혔다.

군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군청사뿐만 아니라 유관 공공기관과 민간으로 확대하고 식품접객업소 등 일회용품 사용 규제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홍보 및 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다.

군은 현장 지도를 통해 지역 내 카페, 식당 등 식품접객업소의 일회용품 사용 실태를 점검하고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에서 종이컵 규제 제외, 플라스틱 빨대의 계도기간 연장과 종량 소매업 등에서 일회용 봉투·쇼퍼백(비닐봉지) 대체품 사용 등에 대한 안내 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추진

고창군이 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2024년도 상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상반기에 추진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하게 된다. 다문화 이해 강사 파견사업, 주정차 질서 확립 계도 사업, 도시공원 미관 조성사업으로 8개 사업 총 21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이 사업은 2023년 3개 사업이었으나, 5개 사업을 신규 발굴하여 총 8개의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며, 이를 통해 군비 예산 절감과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 자격은 근로 능력이 있는 18세 이상의 고창군민으로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이면서 재산이 4억원 이하인 취약계층이다.

소득 기준을 충족한 45세이하 청년과 노숙자를 우선 선발하며, 취업보호대상자, 여성세대주,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 휴·폐업자 등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해 취업 기회를 높일 계획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지역경제 활성화 역량 결집”

이학수 정읍시장, 시의회 임시회서 시정 운영 방향설명 민생경제 회복 · 문화관광도시 조성 등 6개 목표 제시

이학수 시장은 지난 12일 오전 열린 제29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에 참석해 올해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시민과 시의회의 응원 덕분에 민선8기 4년을 위한 토대를 잘 다져왔다”며 “올해에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크게 6개 목표를 토대로 올해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제시한 목표는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미래로 나아가는 희망경제 △시대를 선도하는 문화·관광도시 △시민이 만족하는 행복한 복지도시 △희망으로 미소짓는 농생명의 철

단산업도시 조성 △사람 중심 도시기반 확충으로 도시경쟁력 제고 △시민이 함께하고 공감하는 소통행정 등이 다.

이 시장은 주요 시정운영 방향과 관련,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밝혔다.

이 시장은 “2027년까지 총 사업비 80억원(국비 40억, 도비 8억, 시비 32억)이 투입되는 샘고을 정다운상권 활성화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지역 내 소비촉진을 유발하고 침체된 지역상권을 살리겠다”며 “또 연 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들에게 1인당 연 50만원씩 지급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기여하겠다”고 했다.

이어 “지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

할 하는 정읍사랑상품권 600억원을 발행하고, 성공적으로 정착한 정읍형 공공배달업을 확대 운영해 내수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했다.

이 시장은 청년이 살고 싶은 정읍을 만들기 위해 청년해택도 늘린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청년발전기금을 투입해 역량을 갖춘 청년창업자에게 3년간 총 15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창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안전성평가연구소 전 북분소와 기술지원을 통해 청년창업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돕는 상생지원센터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사업을 추진해 창업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혼부부에서 청년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액도 5년간 1%, 최대 100만원에서 10년간 2% 최대 300만원으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59개월 영유아를 키우는 시민에게 월 10만원씩 육아수당을 지원하고, 공공산후조리원과 어린이전용병동을 갖춘 서남권 소아외래진료센터를 설립해 분만부터 산후조리, 육아까지 이어지는 탄탄한 보육기반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이 시장은 시민들이 편리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시기반을 확충하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이 시장은 “도심지역에 3년동안 121억원을 투입해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공급배관 설치로 연료비 부담을 줄여 주거환경을 개선시키는 것은 물론, 정부의 스마트정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정읍만의 특화된 스마트도시 공간계획을 구상하고, 기본방향과 추진전략을 설정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이학수 시장은 지난 12일 오전 열린 제29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에 참석해 올해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고창군, 예비·신혼부부 건강검진 대상자 확대 지원

현실에 맞는 출산 적극 지원

고창군이 첫 임신을 계획 중인 예비부부와 신혼부부에게 무료 건강검진 서비스를 확대 지원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임신 전 필수 기본검사를 지원해 건강한 임신 환경조성과 현실에 맞는 출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결혼 3개월 이내 예비부부와 결혼 3년 이내 신혼부부로 대상을 확대하고, 요건을 갖춘 사실혼 부부도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지

난해까지 보건소 산전 건강검진은 주민등록상 고창에 주소지를 둔 예비맘에게만 지원돼 왔었다.

건강검진은 고창군보건소(모자보건실)에 방문하면 된다. 혈액형, 일반혈액화(빈혈 외 9종), 간기능, 신장기능, 고지혈증, 당뇨, B·C형 간염 항체검사, 매독, 에이즈, 요 일반검사 등 총 28종의 검사가 이뤄진다.

또한, 올해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미숙아 의료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고위험 임신부 등에 대해서도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확대 지원하고 있다. 앞서 고창군은 군 자체 예산을 확보

해 지난해부터 산후조리비(50만원→200만원)를 확대 지원(전부 최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관내 분만산부인과(고창병원) 이용 분만시 분만진료비 전액 지원, 임신출산축하용품(50만원), 산후 건강관리비(20만원), 산모·신생아 산후도우미(정부지원, 본인부담금 90%)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출산장려금을 2023년 10월13일 이후 출생아부터 첫째 300만원, 둘째 500만원, 셋째 750만원, 넷째 1,000만원, 다섯째 2,000만원으로 확대 지원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청년 주거비용 지원 확대

연령·소득기준 등 지원요건 완화

부안군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통해 올해부터 변경된 청년 주거비용 지원사업 지원요건을 적용해 지원대상자를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과 달라진 점은 연령 확대, 월세 지원 소득요건 완화, 지원기간 확대 등이다. 우선 부안군 청년 기본 조례가 지난해 10월 개정돼 부안군 청년의 나이가 18~45세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해 청년 주거비용 지원사업 지원 가능 연령도 19~45세로 확대됐다.

또 최근 임대료 상승, 물가상승에 따라 1인 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이를 지원하기 위해 월세지원 소득 180% 이하로 완화했다.

최대 지원기간 역시 4년으로 확대해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주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부안군 청년 주거비용 지원사업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2021년 전북 최초로 시행됐으며 올해로 4년째를 맞는 사업이다.

군은 작년보다 급격한 물가상승 및 금리인상에 따라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이 심화되고 지원요건 제한으로 인해 지원받지 못하는 청년들이 다수 발생됨에 따라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해 4월부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추진했으며 직접 중앙정부를 찾아가 사업 변경의 타당성을 설득하고 긴밀하게 협의한 끝에 올해 최종적으로 변경 협의를 완료했다.

군 관계자는 “청년 주거비용 지원사업의 지원요건 완화를 통해 더 많은 청년들이 주거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진입과 정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지훈련을 위해 정읍시를 찾은 선수들 (사진=정읍시청 제공)

정읍시, 씨름·배드민턴 전지훈련 메카로 부상

정읍시가 동절기 씨름, 배드민턴 전지훈련의 메카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12일 시에 따르면 강원 한림대, 호원대, 대구능인고 등 씨름 4개 팀이 지난 8일부터 정읍에서 전지훈련을 하고 있다. 이들은 오는 21일까지 단종미인 씨름단과 합동훈련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15일부터 27일까지는 배드민턴 초등·대학(실업)교 15개 팀의 전지훈련이 국민체육센터, 정읍체육관에서 진행된다. 정읍동초, 정주고 선수단도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함께 훈련에 참여한다.

이에 맞춰 시는 훈련기간 동안 선수들에게 체육시설 대관료 감면과 간식, 생수, 훈련용품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경기력 향상과 신체 적응력 발달 등의 효과를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특히 시는 전지훈련 기간에 전국 각지의 선수단이 정읍을 찾아 숙박시설, 식당 이용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만큼, 선수단 지원 혜택을 강화해 전지훈련단을 확대 유치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이학수 시장은 “선수단 지원 혜택을 관광업 입장료 감면, 시티투어 프로그램 운영 등의 문화관광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전지훈련을 위한 일회성 방문지를 넘어 다시 찾고 싶은 관광도시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아동학대 신고번호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